



세계적 수준의 자동성형접착기 생산

(주)홍이기연

자동성형접착기를 생산하는 (주)홍이기연(대표이사 강대희)은 열악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외국시장을 공략, 이 분야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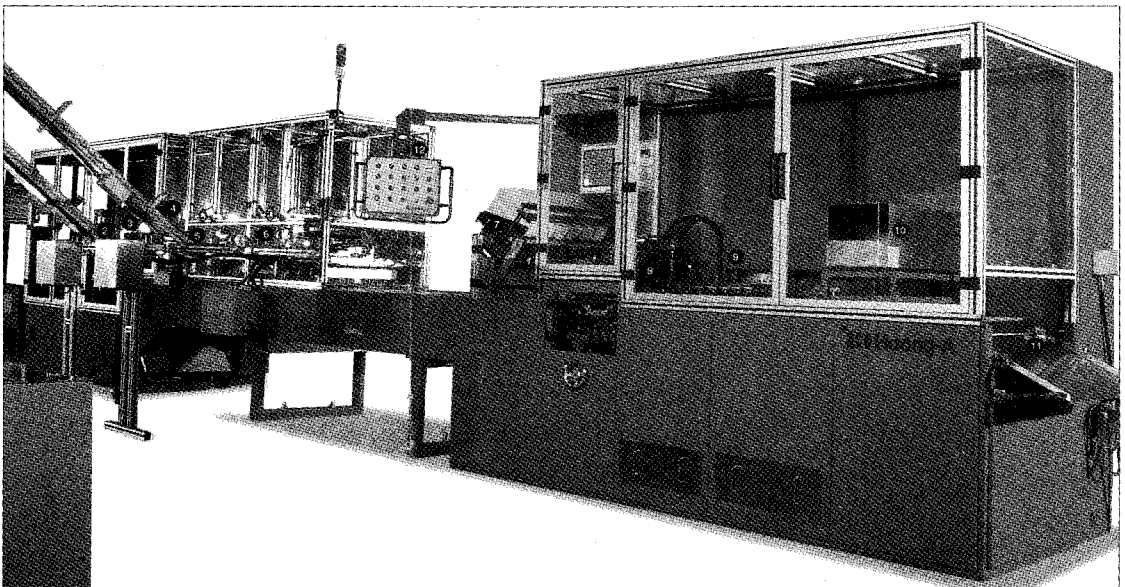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는 (주)홍이기연은 MINISTAR란 자체브랜드로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주력 품목인 블리스터 포장기는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성화되어 국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는 포장기계이다.

블리스터는 물집현상이란 의미인데 블리스터 포장은 합성수지필름을 일정한 모양의 용기로 성형해 그 안에 피 포장물을 충전한 뒤 덮개를 씌워 접착, 봉합한 후 일정한 치수로 타발, 절단하여 하나의 포장단위로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이 포장방법은 제조회사의 정제나 캡슐을 단위포장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현재는 식품, 화장품, 문구류, 생활용품,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청소용품 등 각 업종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주)홍이기연은 단일품목인 자동접착포장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세계시장에 진출, 그 기반을 구축하여 일본과 싱가포르를 필두로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호주, 뉴질랜드, 과테말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각종 해외전시가 있을때마다 해외동향을 알기 위해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직접 전시회에



참가하는 (주)홍아기연은 87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AUS PACK을 시작으로 매년 5~6개 전시회에 자사 제품을 출품,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미주지역에는 (주)홍아기연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북미, 중미, 남미의 수출도 진행하고 있다.

(주)홍아기연의 제품은 다른 업체들이 소량 다품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비해 대량생산용 설비체제인 것이 특징이며 수출, 수입에 대한 사내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 제품을 용도와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96년에는 기계류, 부품, 소재에 대한 품질인증서 EM마크를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획득했으며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생산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96우수자본재개발 유공자로 국무총리상 수상, 제33회 무역의날에 통상산업부 장관상 수상, 97년에는 97국산개발 우수자본재 포장기계 부문 대통령표창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각종 수상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L.A La palma 현지법인 증자로 해외영업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INTERPHEX, PACK EXPO 98, 중국에서 열리는 CHINA BATTERY 전시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PRINT & PACK 98에 출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MINISTAR', '미니스타'에 대해 상표출원 공고를 하고 있는 (주)홍아기연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대다수 업체들의 고민거리이지만 전문인력은 쉽게 길러지는 것도 아니어서 정부, 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현안이다.

강대회 사장은 "21세기의 환경과 포장산업은



PVC+종이와 같이 복합재질로 사용하는 포장 방식에서 탈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동일재질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알맞는 기계를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K]